

### 경기도 유망 中企 160여 개사 6천6백만 불 對日 수출길 열려

일본 4개 권역 바이어  
38개사 도내 160여개  
중소기업과 상담 성과

경기도 유망 수출기업 160여 개사가 우수한 품질경쟁력과 빈틈없는 아이디어로 대일(對日) 수출 확대에 나섰다.

도는 6월 8일 안산 호텔스퀘어에서 열린 일본바이어 초청 '2017 G-TRADE JAPAN 수출상담회'에서 총 370건, 6654만 달러 규모의 성공적인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돕고자 마련된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경기도 김동근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의병 원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과 일본 바이어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등 일본 내 4개 권역의



바이어 40명이 참가해 도내 중소기업 160여 개사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특히 2012년부터 지속된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우려를 뒤로 하고 바이어와 참가기업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바이어들은 품질에 민감한 일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생활소비재 △미용의료 △전기전자 △공구기계 △식품 △패션 제품 등 아이디어와 가격경쟁력을 겸비한 상품에 드

거운 관심을 보이며, 상담회에서 만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일본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이날 상담회에 참여한 천연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인 모돈지코스메틱스(평택시 소재, 대표 김규태)는 일본 도쿄의 화장품 무역회사인 Z社와 5만불 상당의 애플과 영양크림 제품을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는 "최근 일본 경기가 연일 순항임에도 대일 무역수치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런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들과 함께하는

이번 수출 상담회의 성과는 더욱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과 대일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열린 'G-TRADE JAPAN' 행사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200개사가 참여해 현지 바이어 41개사와 총 361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벌여 58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다.

정미라 기자  
mamuk@hanmail.net

### 평택라마다양코르호텔 '행복 나눔' 중식 제공 '훈훈'

저소득 소외계층 장애인  
120명 초청 점심 대접  
기념품 전달 등  
행복특강 미술소도

21세기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는 평택항 포승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평택라마다양코르호텔(공동대표 김지은·김명현)은 8일 평택시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과 장애인 총 120명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했다.

또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

기 위해 기념품을 전달하고 행복특강 미술쇼를 준비하는 등 훈훈한 오찬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개관한 평택라마다양코르호텔은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로 총 302개의 객실과 스키아라운지, 커피숍 및 연회장과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비즈니스는 물론 휴양, 관광의 모든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트렌디(Trendy)한 호텔이다.

김지은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

지만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오찬 기부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초청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눔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관심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해 준 평택라마다양코르호텔에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평택시 지역복지 증진과 더불어 이러한 나눔이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평택 북부노인복지관, 문화 날들이 만끽  
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이어 광명시에 있는 폐광을 둘러 일제시대의 유물로 남겨진 우리 선인들의 쓰라린 고역의 역사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왔다.

평택 북부노인복지관(관장 이 원형)은 지난 5월 30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170여명과 문화활동 날들이를 다녀 왔다. 한강 하류에서 인천으로 통하는 아라뱃길을 따라 늦은 봄 향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지원 '무지개 Job아라' 사업 운영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지난 4월부터 '무지개 Job아라' 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지원하는 본 사업은 중도입국청소년의 원활한 한국 정착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 16세부터 24세까지의 진로를 고민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이라면 국적, 비자,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TOPIK과 직장생활 한국어 등의 한국어교육과정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자기이해, 경제교육, 진로 및 직업 탐색 등의 진로탐색교육을 실시하고, 진로멘토링, 자기소개서 및 면접, 취업실무 등의 진로설계교육과정과 현장학습 및 단기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무지개 Job아라는 6월 9일 수료했으며, 2017년 하반기에는 '내-일을Job아라'를 신청해 더욱 다양한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직업 능력 향상 및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한다.

또한,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초기지원 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를 돕는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해외동포들의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대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다문화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보용 기자  
byleec@hanmail.net

###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노인지도자교육 실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지회장 홍 장근)는 6월 8일 남부청소년회관에서 신하 535개 경로당의 회장·총무를 대상으로 제 13회 노인지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장에는 공 재광 시장을 비롯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등 다수 내빈이 참석해 노인회 발전을 격려했으며, 홍 장근 회장은 각 경로당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대희 기자  
godhlim135@hanmail.net